

6. 폐의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과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과의 세포학적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Cytologic Features Between Bronchogenic Adenocarcinoma and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of Lung

고려대학교 의료원 해부병리과
조원보, 조현이, 김한겸, 원남희, 김인선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은 원발성 폐암의 3%에서 발견된다. 이 암종은 임상적으로는 폐의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과 상이하고 조직학적으로는 분화가 좋아서 양성세포로 오진하기 쉽고 또한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과의 세포학적 감별이 용이하지 않다.

저자들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객담검사 중에서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및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으로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예를 각각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6례,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5례를 골라 임상적인 고찰 및 세포학적 검색을 시행하고, 특히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을 점액을 분비하는 형인 제 1형, 점액을 분비하지 않는 형을 제 2형로 나누어 기관지 기원성 선암과 비교 검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환자의 평균 연령은 58세였고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환자는 59.8세로 비슷하였고, 성별로는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환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5:1로 많은 반면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4:1의 비율을 보였다.
2.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병리학적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의 경우에는 평균 2.3개월이었던 반면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의 경우에는 평균 17.6개월이었고 임상 병기로는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환자들에서는 대부분 III기였고(5/6=83%),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환자에서는 I기가 1례, II기가 2례였고, IV기가 2례이었고 IV기 환자들은 각각 흉벽과 골에 전이가 있었다.
3. 방사선학적으로는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 환자의 경우는 폐의 상엽에(4/6=67%) 주로 단일 종괴(5/6=83%)로 나타났으며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환자는 폐의 변연부 혹은 전 폐에, 폐렴과 유사한 양상 혹은 다발성의 결절로(4/5=80%) 관찰되었다.
4. 세포학적 소견상, 기관지 기원성 선암종의 경우에는 공과 유사한 세포군이 나타나고(5/6=83%), 핵의 주형(Nuclear molding, 5/6=83%), 핵의 염색질이 수포성이면서(5/6=83%), 핵소체가 크고 뚜렷하여 핵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3/6=50%) 특징인 반면,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에서는 폐포 대식구와 유사한 모양으로 날개로 나타나거나 유두상 배열을 하는 양상과(4/5=80%) 핵의 염색질이 미세한 과립상이면서 작거나 분명하지 않은 핵소체를 보이는 것이(4/5=80%)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세기관지 폐포성 암종 5례의 조직학적 유형중 제 1형이 3례였고 제 2형은 2례였으며, 세포학적으로는 제 1형에서는 뚜렷한 점액공포가 보인 반면 제 2형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